

한국러시아문학회보

ВЕСТНИК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NEWSLETTER

발행일 2008년 12월 5일 발행처 한국러시아문학회

통권 제35호

권두언



이 강 언
(부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톨스토이가 <부활>을 쓰게 된 동기는 잘 알려져 있다.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며 문학 창작을 중단했던 톨스토이는 이교도로 탄압받던 두호보르 교도의 해외 이주를 돕기 위해 <부활>을 쓰기 시작한다. 부인 소피야는 문학작품의 인세는 모두 자신에게 속한다고 주장했지만 톨스토이는 이 작품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기타 모금액을 더해 두호보르 교도들을 큰 배에 태워 캐나다로 보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부활>을 집필하는 중에 한 미국 출판사가 돈이 급했던 톨스토이에게 영문 번역출판권을 사겠다고 작품의 요약본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 말을 듣고 톨스토이는 분노한다.

내게 요약이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부는 이미 썼지만 2부는 아직 출판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다 썼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는 그걸 바꿀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싶습니다. 요약본과 원고상태를 읽어보겠다는 것에 대해 내가 결연히 반대하는 이유는 내가 오만해서가 아닙니다. 글을 쓰는 내 정신활동이 그 어떤 다른 실용적 목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나의 작가로서의 소명의식 같은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험오스러운 제안에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작품을 구상하고 써나가고 있지만 작품은 애초의 구상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많은 가능성 앞에 열려있으며, 그 가능성을 향해 나아

가는 정신활동이 그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 구속될 수 없다는 완고한 톨스토이의 모습이 그대로 떠오르는 것만 같다. 이런 톨스토이에게 출판사의 상업적 목적 달성을 위해 미리 작품의 요약본을 제시하라는 제안이 너무나도 ‘험오’스러웠던 것은 당연하리라.

문학은 삶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다. 삶은 요약될 수도 없다. 문학은 오히려 삶을 더욱 삶으로 펼쳐놓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문학의 수많은 주인공들은 우리 삶에 이미 들어와 같이 살고 있으니깐. 문학을 연구하는 학문 역시 문학을 요약하고 간명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만은 아니다. 어떤 비밀을 해명해서 발견하는 작업이기보다 작품과 작가라는 대상을 매개로 새롭게 의미를 확산하고 창조하는 것이 문학연구의 본질에 더욱 가까운 것이 아닐까.

모든 것이 돈과 경제로 요약되기 급급한 시대이고 대학에서마저 학문 발전이라는 요약된 슬로건이 우리를 압박한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단순화되고 일목요연해진다. 효과적인 연구계획서와 과제들을 만들어내느라 어쩔 수 없이 내몰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자신의 삶과 문학을 요약해 달라고 기꺼이 목을 내밀어야 하는 시대에 톨스토이의 험오와 분노는 사치스러워 보이기가까지 한다.

하지만 우리 학회는 여전히 어떤 험오와 분노 같은 것이 조금 살아있는 공간처럼 보인다.

그랬으면 좋겠다.



연차학술대회 소식

▷ 2008년 10월 28일에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5, 6회의실에서 2008년 연차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연차학술대회는 “러시아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CIS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되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전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이현우 회원(서울대)이 ‘러시아 문학과 세계문학’, 김연경 회원(서울대)이 ‘러시아 문학과 한국문학’, 이지연 회원(한양대)이 ‘러시아 문학’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사회에는 이강은 회원(경북대), 토론에는 석영중 회원(고려대), 남영호 회원(충북대), 박혜경 회원(한림대)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후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사례발표로 윤새라 회원(대전대)이 ‘안과 밖의 정치학: 미국과 한국의 러시아어 교수법’, 유승만 회원(한양대)이 ‘러시아 교수법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문학분과 첫 번째 섹션에서는 최정현 회원(고려대)이 ‘키예프 루시 시대 문헌에 나타난 러시아 땅(Русская земля)’, 이경완 회원(서울대)이 ‘성서적 기독교 관점에서 본 고골의 종교성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사회는 박종소 회원(서울대), 토론은 서선정 회원(서울대), 이기주 회원(대구대)이 각각 수고해 주셨습니다. 문학분과

두 번째 섹션에서는 Мария Кайржановна Лопачева님(부산외대)이 ‘О блоковском подтексте эмигрантской лирики Георгия Иванова (Цикл <Розы>)’, 김혜란 회원(부산외대)이 ‘1970년-80년대 소비에트 언더그라운드 연극과 L. 페트루셴스카야의 검은방’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사회는 이대우 회원(경북대), 토론은 Александр Родионович Петров(연세대), 안지영 회원(경희대)이 각각 수고해 주셨습니다. 어학분과에서는 김용화 회원(충북대)의 사회로, 안병팔 회원(서경대)이 ‘러시아어 총칭명사의 형태와 의미에 대한 연구’, 유승만 회원(한양대)이 ‘한국어-러시아어 연어의 의미기술과 어휘함수’, 전명선 회원(중앙대)이 ‘러시아어 불완료상의 актуально-длительное(현실법적 진행)의 설명--베주비츠카야 (Вежбицкая)의 설명법(метод толкований)과 정신어(язык мысли, lingua mentalis)’, 정하경 회원이 ‘Grammaticalization Revisited: 북부 러시아어에서의 완료시제 발달’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토론에는 남혜현 회원(연세대), 이남경 회원(고려대), 홍택규 회원(한림대), 최성호 회원(충북대)이 각각 수고해 주셨습니다.



학회지 발간

지난 10월 25일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29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제29집에는 강수경·양민중 회원(부산대)의 [러시아 민담에 나타나

는 바보이반(Иван-дурак)의 형상을 포함한 12편의 문학 논문과, 문화 분야 논문으로 이지연 회원(한양대)의 [문화 : 기념비와 스탈린

● ● ● 공 지 사 항

신화: 권력의 재현적 공간으로서의 소비에트 예술과 삶] 이 실려 있습니다. 이번 29집에는 어학논문은 없었습니다.

* 도착 예정일이 경과했음에도 학회지를 수령하지 못하신 회원은 편집부로 연락주시면 재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제55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 개최 안내

제55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가 12월 13일(토)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서울대학교 7동 4층 교수회의실이며, 시간은 오후 3시부터입니다. 이에 앞서서 13시 30분에는 이사회 모임이 3동 4층 러시아연구소에서 개최됩니다. 이사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어학분야에서는 김진규 회원(고려대)의 사회와, 안혁회원(연세대)의 토론으로 안병팔 회원(서경대)이 ‘러시아어 총칭명사 연구’의 주제로, 문학분야에서는 최선 회원(고려대)의 사회, 심지은 회원(연세대) 회원의 토론으로 김선안 회원(고려대)이 ‘<청동기마상>의 파라텍스트’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정례학술논문발표회에서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발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각 분과의 학술이사(백용식 문학분과 학술이사(straussrun@hanmail.net), 김진규 어학분과 학술이사(scspark@suwon.ac.kr), 엄구호 역사문화 분과 학술이사(tassdk@chollian.net)에게 A4 1-2장 이내의 발표 요약문

*** 학회비를 미납하여 학회지를 우송받지 못한 회원께서는 미납된 학회비를 납부하시고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지에 변동이 있는 회원께서도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총무간사 김정일(jungil-kim@hanmail.net, 011-9714-5909)

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30집 원고 모집

2009년 2월 25일 발간예정인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30집에 게재할 논문을 접수합니다. 30집의 논문제출 마감일은 2008년 1월 5일이고, 조기 심사 마감일은 12월 5일이었습니다. 원고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원고는 다음 호의 심사대상이 되오니 마감일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원고 작성은 학회 홈페이지의 <학회지 투고논문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학, 어학, 지역학(문화) 분야의 약 10여 편의 논문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우) 380-701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322번지 건국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심정보 교수
연구실내 한국러시아문학회 편집부 rusistika@hanmail.net

▷ 회비 납부 현황

2008년 11월 6일 현재 학회비 납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내주신 회비는 엄격하고 꼼꼼하게 관리되어 학회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혹시 회비 납부를 하였으나 아래 명단에 누락된 경우에는 총무간사(김정일, jungil-kim@hanmail.net)에게 연락 바랍니다.

△ 평생회비 완납(1997년-2008년 11월 6일 현재)

김경태, 김규종, 김선명, 김선안, 김세일, 김용화, 김정아, 김정일, 김진규, 김진영, 김철균, 김희숙, 문석우, 박종소, 박재만, 박현섭, 박형규, 박혜경, 박혜옥, 백용식, 서상범, 석영중, 송인필, 심민자, 심성보, 안병용, 안병팔, 오원교, 오종우, 유승만, 이강은, 이규환, 이기웅, 이기주, 이남경, 이대우, 이명현, 이영의, 이장욱, 이재혁, 이준형, 이항재, 이현숙, 이형숙, 전지용, 전명선, 정명자, 조미경, 조주관, 조유선, 조혜경, 최건영, 최병근, 최 선, 최중술, 최진희, 허승철, 홍대화, 홍지인, 한예경 (이상 60인)

△ 평생회비 부분납(1997-2008년 11월 6일 현재)

김혜란(10만원), 민경현(10만원), 변현태(25만원), 심지은(15만원), 안지영(10만원), 이득재(38만원), 윤새라(10만원), 서선정(10만원), 홍택규(15만원), 안지영(20만원), 이지연(15만원), 서선정(10만원) (이상 12인)

*** 현재의 명단은 2008년 11월 6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완납해 주시면 바로 평생회비 완납명단으로 올리드리겠습니다.

△ 2008년 일반회비 납부현황 (2008.1.1 - 2008. 11.6)

개인회원: 강철, 김윤미, 김종민, 박선영, 배성현, 서승현, 우복남, 원석범, 이문영, 이수현, 이인영, 임혜영, 전성희, 최정현, 허효영, 강수경 (이상 16인)

단체회원: 고려대, 경북대, 부산외대, 상명대, 한국외대용인캠퍼스, 안양대, 국회도서관, 대구대학교 (이상 8개 대학)

▷ 2008년도 회비 납부 안내

아직 2008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은 아래 계좌로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원 입회비는 2만원이며, 정회원의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생회비는 3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전임교원/ 5만원

△일반회원/ 3만원

△평생회비/ 비전임 30만원,
전 임 50만원

※ 입금하실 계좌 번호는 **우리은행 1006-901-280735 최성호(한국러시아문학회)** 입니다. 입금하실 때는 반드시 입금 내역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연회비, 홍길동평생회비)

※ 지난 10월 25일 연차학술대회 뒷풀이 장소에서 전명선 회원(중앙대)께서 뒷풀이비용 10만원을 쾌척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원동정



신입회원 소개



신간소개

(인터넷 교보문고의 서평을 올립니다)

▷ 지난 11월 2일 을지로 5가 아카시아 호텔에서 이형숙 회원(고려대)이 안계섭님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회원님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 이장욱 회원(조선대)이 지난 12월 1일 자로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임용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학회의 새 식구가 되신 분들입니다(기존에 학회활동을 해오셨으나 새로이 가입하신 분들 포함). 입회를 환영하며 앞으로 활발한 연구와 학회 활동을 기대합니다.

△ 허효영-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졸업, 2007년 상트페테르부르크 Институт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 저서

【현대 러시아 사회와 대중문화】 이문영 지음. 한울아카데미, 2008년 7월
글로벌 시대 보편적 문화 현상으로 대두한 대중문화의 시각에서, 소련 붕괴 이후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와 그 이전을, 또는 포스트소비에트와 그 외부, 시공의 차원에서 가 아니라, 가치의 차원에서 가르고 관통하는 어떤 특성을 고찰해보고자 한 책

【두 개의 권력 러시아의 미래】 유철중, 박상남, 채인택 지음. 플래닛 미디어, 2008년 7월
상왕 총리와 대통령이라는 사상 초유의 정권교체를 한 푸틴과 러시아

※ 교원임용, 학위취득, 결혼, 연구 활동을 위한 출국이나 귀국 등의 소식을 총무이사(straussrun@hanmail.net), 총무간사(jungil-kim@hanmail.net)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식은 물론, 주변 회원들의 소식도 좋습니다.

РАН (Пушкинский дом) 졸업
학위: <Ранняя драматургия Евгения Шварца: Поэтика и эволюция>

△ 전성희-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비교문학 박사과정 수료

의 신입 대통령 메드베데프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통해, 푸틴-메드베데프로 이어지는 권력이행을 역대 러시아의 권력교체 역사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 책

【러시아 에너지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윤성학 지음. 뽀쉬깁하우스, 2008년 7월

한반도와 인접한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 현황과 외국계 기업의 투자 현황 등을 정리하고,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이 한국의 경제, 외교, 안보 및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책

【러시아 박물관】 이춘근 지음. 민속원, 2008년 8월

러시아 박물관에 대해 기록한 책. 러시아 박물관 현장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 주며 러시아 문화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러시아 박물관 법령, 러시아 박물관 분류, 박물관 운영지원체제, 박물관의 기능, 유물의 등록과 연구, 박물관의 현대적 정보 보장, 문화재 화재 및 도난방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의 민족정책과 역사학】

류한수 지음. 동북아 역사재단, 2008년 11월

지난 2008년 8월에 그루지야의 남 오세티아 공격으로 시작된 러시아 - 그루지야 전쟁은 옛 소련 지역에서 민족 및 국경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소련의 민족정책과 역사학의 관계를 살펴본다.

【근대 러시아 문학사: 떠오르는 태양】 김문황 지음. 개신, 2008년 8월

지난 2008년 8월에 그루지야의 남 오세티아 공격으로 시작된 러시아 - 그루지야 전쟁은 옛 소련 지역에서 민족 및 국경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소련의 민족정책과 역사학의 관계를 살펴본다.

【제정러시아의 한반도정책 1891-1907】 최덕규 지음. 경인문화사, 2008년 11월

지난 2008년 8월에 그루지야의 남 오세티아 공격으로 시작된 러시아 - 그루지야 전쟁은 옛 소련 지역

에서 민족 및 국경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소련의 민족정책과 역사학의 관계를 살펴본다.

▶ 역서

【러시아 사상가】 이사야 벌린, 에일링 켈리 / 조준래 옮김. 생각의 나무, 2008년 6월

20세기 유럽의 지성으로 불리는 이사야 벌린의 책 「러시아 사상가 (Russian Thinkers)」를 번역한 책. 1948년부터 1972년까지 톨스토이와 게르첸, 투르게네프, 벨린스키와 같은 문인과 사상가 등 19세기 러시아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에 관하여 발표하거나 강연했던 에세이 10편을 엮었다.

【고대 러시아 문학사. 1. 2】 니콜라이 깔리니코비치 구드지/ 정막래 옮김. 한길사, 2008년 7월

러시아 문학이 세계 문학사에서 기틀을 마련한 고대와 중세의 러시아 문학을 소개한 책. 끼예프 러시아 문학부터 공국시대의 문학과 통일시대의 문학에 이르는 고대와 중세 러시아 문학 전반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룬다.

【러시아 문학사】 D. P. 미르스끼/ 이항재 옮김. 써네스트. 2008년 8월
고대 러시아 문학에서부터 1920년대까지의 러시아 문학사가 총망라되어 있다. 미르스끼의 『러시아 문학사』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에서 펴낸 문학사의 다소 편향된 부분(특히 1910, 20년대의 상징주의자

들에 대한 다소 주관적인 평가)을 극복하면서 러시아 문학을 고립된 현상이 아닌 전체 유럽문학의 유기적인 일부분으로 다룸으로써 그 총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 현대 희곡: 사랑】 따찌
아나 A.까쨌스까야/ 박상하 옮김.
동인, 2008년 10월

러시아 현대 희곡 두 편을 소개한다. 이 희곡 작품들은 최근 러시아에서 공연되었거나 지금도 공연되고 있는 작품들이다. 이 책은 가장 최근의 러시아 희곡을 선택한 이유는 러시아에서 현재 공연되고 있는 최근의 작가와 작품은 어떤 경향일까라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 회원 여러분께서 출간하신 신간이 있으면 학회 홈페이지에 간략한 정보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관련 서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책도 좋습니다.

한 국 러 시 아 문 학 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ИСТОВ

—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변현태 교수 연구실 내 (사무국)

Tel: (02) 880-9030 Fax: (02) 871-6128 학회 Home Page: www.russian.or.kr